漁港消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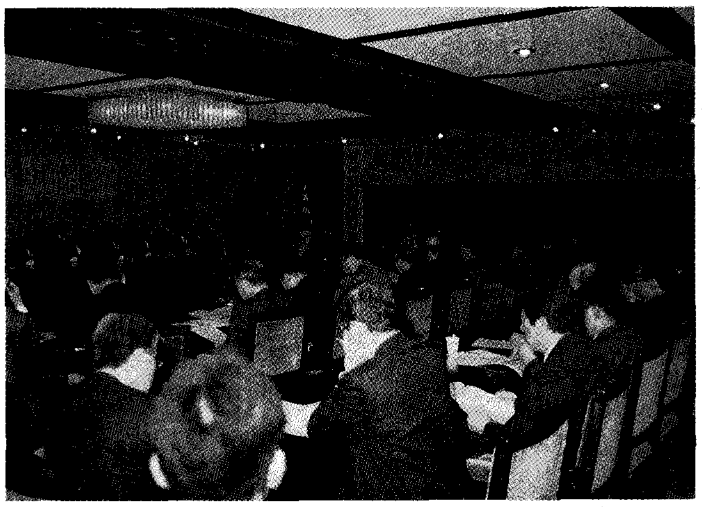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인쇄인 金在克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TEL. 568-6651~3
FAX. 568-6653
月刊 : 비매품
등록번호 : 라3459
등록일 : 1988년2월19일

會訓
創意 ● 奉仕 ● 誠實

漁港은 우리 漁民의 永遠한 어머니 품

한국어항협회 特殊法人 전환
조직·자산 등 권리의무 승계

2월23일 總會서 의결



■ 한국어항협회 특수법인 전환 총회가 2월 2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 MBC판소리탈렌트 김종엽씨를 초청, 특별축하행사를 가졌다.

기능 역할 더욱 중요 회원 합심 성과 거양

孫회장、협회운영 내실화 다짐

李청장 致辭

한국어항협회는 2월23일 오전 11시 건설회관 3층에서 이희수 수산청장을 비롯、내외 귀빈과 회원 1백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법인 전환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개정어항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의 기구、조직、인원、자산등 모든 권리의무를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 한국어항협회가 승계하는 사항과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했다.

이희수 수산청장은 치사를 통해 『지난해 어항법 개정으로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 및 홍보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국어항협회가 특수법인으로 새로이 출범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하고 『새출발 하는 한국어항협회는 종래와는 달리 기능과 역할、책임과 의무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할 것이며、협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하여 변화되는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이희수 청장은 이와 함께 『우리 어촌을 쾌적하고 보다 살기좋은 복지어촌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업의 기반시설인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2004년까지 지정 어항을 6백40개로 확대하고、농어촌 특별세에서 조성되는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어항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협회의 특수법인 전환을 계기로 협회운영을 더욱 내실화 하는 한편、정부와 회원 모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단체로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손정식 회장은 또 『협회를 구심점으로 모든 어항인의 노력을 총 결집하여 신수산 시책에 동참함으로써 활력 있는 어촌、잘사는 어촌、쾌적한 어촌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총회에 이어 MBC판소리 탈렌트 김종엽씨를 초청、특별축하행사를 가졌다.

孫井植회장 또 1천만원 協會 발전기금으로 기탁

손정식 한국어항협회 회장은 지난 2월14일 협회의 어려운 재정형편과 특수법인 전환을 계기로 지난해 8월 1천만원을 기탁한데 이어 협회 발전기금으로 사재 1천만원을 또 다시 쾌척했다.

손정식 회장은 이와함께 협회 직원에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보람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農特稅 2조5천억 요청

수산청、어항시설 등 소요예산으로

수산청은 UR협상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 제1·3종 어항의 기본시설과 양식어장 재배치등에 중점 투자키로 하고 농림수산부에 2조5천억원의 예산을 요청할 방침이다.

수산청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15조원이 조성될 농어촌특별세 수산부문의 예산은 2조5천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1·3종어항의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등 어항기본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위판장의 급유 급수시설과 어항진입도로 건설、호안도로 개설등에 예산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양식어장의 정비작업에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양식어장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산청은 이밖에 첨단연구시설 확보와 어촌종합개발등에도 농특세를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8개항 구역변경 2월15일자 시행

수산청은 어항정비계획조사결과 경남통영군 소재 매물도항등 8개어항의 구역변경을 확정、2월15일 시행에 들어갔다.

특수법인 출범 큰 성과 회원 능동참여도 기대

李義秀 수산청장 총회치사

오늘 한국어항협회의 특수법인 전환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어항개발과 문화창달을 위해 헌신、봉사해 오신 손정식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과 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해에는 오랜동안 우리의 숙원사업이자 최대 현안의 하나였던 어항법이 법 제정된 후 24년만에 개정됨으로써、어항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유치 근거를 마련하였고、어항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시설을 새로이 어항시설에 포함시켰으며 어항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특히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어항협회가 새로이 출범하게 된 것은 비단 어항분야 뿐아닌 수산계 경사요、하나의 큰 성과라 할 것 입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특수법인으로 새출발하는 한국어항협회는 법정법인으로서 종래와는 달리 기능과 역할、책임과 의무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어항업계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할 것이며 이에 거는 수산계 기대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어항을 漁村 定住의 핵으로 理想어항 건설에 매진토록

문민정부의 출범이래、수산계는 「깨끗한 바다、풍요로운 자원、질서있고 경쟁력 있는 어업、그리고 잘 사는 어촌」이라는 신수산시책을 이룩하기 위하여 민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어항업계도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항건설에 약 7백억원을 들여 조기견실완공을 촉진하겠으며 95년부터 2004년까지 획기적인 투자확대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4백7개항의 지정어항을 크게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개발을 기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편、일부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함으로써 어항기능을 활성화하고 어민의 이용도 제고에도 힘쓸 것이며、또한 어항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청문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산·학·연·관의 중지를 모으고 일선 어민과 호흡을 함께 하는 어항행정이 되도록 하겠으며、앞으로 수산행정 전반에 걸쳐서도 어민의 참여와 창의를 최대한 반영、투명하고 보다 신뢰받는 수산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년 창선대교 붕괴사고등 부실공사사례가 있어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우리 어항공사는 태풍、폭풍、해일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공사로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정부에서는 부실시공을 후진국형 망국병으로 보고부실시공 추방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항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가슴에 새겨 적극 동참

〈2면에 계속〉

″회원·협회 도약의 기회 기능 역할증대시킬 터″

어항개발 위한 기술발전 조사 연구활동 강화키로

″하나되는, 함께하는, 앞서여는 협회″ 이룩

어항문화 창달에도 이바지 어항인 공동이익 증진 최선

孫井植회장
총회인사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자리를 같이 해주신 존경하는 이희수 수산청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한국어항협회 특수법인 전환총회를 맞이하여 저는 벅찬 감격과 함께 새로운 감회를 느낍니다.

저희 협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된 것은 오로지 회원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수산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전폭적인 배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년은 우리 모두가 체험한 바와같이 우리 사회는 혼돈과 변혁이 뒤흔든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그동안 왜곡됐던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로잡긴 했으나,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은 결코 이러한 우리의 정체된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이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는 개방이란 대 전제 아래 이미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했으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와 부조리 비효율을 과감히 청산하고, 진정한 개혁을 통한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이 험난한 국제 경쟁사회에서 도태되고 말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협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한국어항협회는 자타가 공인할 만큼 괄목할만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화합과 단결로 묵묵히 극복한 결과 어항인의 총 본산이자 요람이 될 구심점을 마련했으며, 어항법 개정으로 특수법인으로의 승격과 함께 법적지위가 향상되고 정부용역사업 예산도 확보함으로써 협회는 명실공히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출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협회와 회원 여러분의 내실있는 발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협회의 운영을 더욱 실내화 활성화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내외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수익사업과 정부위탁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이번에 도입하는 농어촌 특별세의 재원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농어촌지역 균형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어항분야의 발전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한국어항협회의 특수법인 전환이야말로 협회·회원 모두가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협회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회원 여러분 사이에서 원만한 조정자 역할을 다함으로써 정부와 회원 모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러한 단체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이자리를 빌려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부설어항어촌개발연구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소로서 우리나라 어항어촌개발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성숙된 자세로 사명감을 갖고 어항발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앞에 이제 더 이상 시련과 고난은 없습니다. 도전은 극복하기 위해 있을 뿐입니다.

오늘 협회의 특수법인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어항사에 신기원을 이룩할 하나되는 협회, 함께하는 협회, 앞서 여는 협회를 기필코 창조해 내는데 총력을 모으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협회의 사업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첫째, 어항개발을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둘째,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어항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어항문화를 창달하겠습니다.

넷째, 어항관계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법인 전환을 계기로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증대시키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지금은 화합과 개혁, 창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어항인도 이에 걸맞는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대로 도태되고 맙니다.

이제는 합리로써 그리고 기술로써 당당히 겨루어 이기지 않고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실력의 시대가 도래 했음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고틀의 혁신만이 생존경쟁의 핵이라는 점을 되새기고, 협회가 앞장서 최상의 노력을 기울일 작정이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도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사고와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이희수 수산청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특수법인으로 새출발하게 될 한국어항협회를 구심점으로 모든 어항인의 노력을 총결집하여 신수산 시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활력있는 어촌, 쾌적한 어촌, 잘사는 어촌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어항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1면에서 계속〉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성명을 통하여 「이제, 이 땅에서 부실공사는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저희 건설인은 새로운 의미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UR협상의 타결은 농업이나 수산분야 뿐 아니라 건설시장도 그 예외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내건설업도 국제적으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어항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항건설 기술수준의 향상은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며 협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우리 어촌을 쾌적하고 보다 살기좋은 복지어촌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업의 기반시설인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항은 단순한 어선의 안전수용뿐 아니라, 보급, 유통、가공등 기능을 겸비한 어업근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또한、어항을 중심으로 어촌정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종합복지시설, 주민 편익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며 민자를 유치하여 어항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깨끗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이상어항이 되도록 어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국어항협회 특수법인 전환총회를 전기로 하여 어항인 여러분은 이 협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하여 변화되는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이상적인 어항건설과 새로운 어항문화의 창달과 신수산을 이룩하는데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 입니다.

끝으로 한국어항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는 바 입니다.

動靜

▲이희수 수산청장은 2월2일 山崎拓씨등 일본 중의원의원 3명의 예방을 받고 양국 어업분야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3일에는 88체육관에서 거행된 도시 농촌간 결연식 행사에 참석하고 관계자를 격려、이날 오후에는 산하단체장회의를 주재하고 수산물수입개방에 따른 현안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7일에는 국회UR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14일에는 일본 자민당 중의원의원등 8명을 접견하고 양국 어업현안을 협의、15일에는 태풍 폭설피해를 입은 전북 충남지역을 방문하고 피해어민을 위로、16일에는 수협중앙회 정기총회에 참석。

▲박광훈 수산청차장은 17일부터 3일간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정책관리자 및 핵심과장 민간연수에 참여。

▲이방호 수협중앙회장은 2월1일 청와대에서 농어촌발전특별위원으로 위촉、2일、4일에는 부산시지회 현관식과 경남도지회 준공식에 참석、15일에는 농협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16일에는 농경연에서 열린 농어촌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성환 한국어선협회장은 2월4、5양일간 목포 완도지부를 순시、16、18일에는 제주 인천지부를 순시하고 관계직원을 독려。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2월3일 수산청 산하단체장회의에 참석、4일에는 협회 부설어항어촌개발연구소 연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15일에는 서해어항사무소를 방문하고 현안사항을 협의、17일에는 제18차이사회를 개최、18일에는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린 민자당수산분과 임원 조찬회에 참석、18、19양일간은 프레스센타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주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 대 토론회」에 참석、26일에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고위 경제과정에 입교、28일에는 연세대학교 언론 홍보대학원 신문학과를 수료。

▲배환갑 영생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18일 대한건설협회 이사회에 참석。

▲최상옥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월31일부터 2월6일까지 산업시찰차 일본 출장、18일에는 김종필 민자당대표위원 초청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사장은 2월22일 해운항만청에서 열린 항만건설 안전관리교육 강연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2월2일 전경연이사회에 참석、4일에는 전경연에서 주관한 재외공관장을 위한 오찬회에 참석、15일에는 민자당 창당기념행사에 참석。

▲양성후 세기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2일 한국경영자협회 세미나에 참석、16일에는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성호 회장은 2월21일 업무차 여수지역 출장。

인사이동

▲수산청 〈서기관 승진〉 △기획예산 담당관실 방기혁 △원양생산담당관실 이용수 △어정국제조과 전병하 △생산국연근해과 박해용 △시설국시설과 송예용 (2월5일자)

〈전보〉 △시설국어선과장 김종규 △국립수산진흥원 시설운영과장 이진안 △국립수산진흥원동해수산연구소기획과장 이광수 △국립수산진흥원시설운영과 양승철 (2월15일자)

이전

▲한국어선협회 목포지부 사무실이 2월1일 전남 목포시 충복동2가(대동빌딩2층)로 이전했다。 전화:(0631)44-9780

▲성보건설산업주식회사는 최근 강남구 역삼동 718-24(성보빌딩 6~7층)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전화:539-1501~5、539-1521~5。

주소변경

▲전기원씨(주식회사영도주택 회장)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장안타운 126동 1004호로 주소를 변경했다。 전화:(0342)702-9337。

화촉

▲박영철씨(수산청 어항과)의 차남 국진군은 2월5일 남서울교회에서 화촉을 밝혔다.

▲이정식씨(전 한국어항협회 전무이사)의 3남 종율군은 2월21일 삼성동 공항터미널컨벤션센타에서 화촉을 밝혔다。

▲임종국씨(수산청 어정국장)의 장녀 주현양은 3월12일(토) 오후3시 천주교 대방동성당에서 화촉을 밝힌다。

▲정덕용씨(주식회사 삼건사 사장)의 장남 성준군은 3월31일(목) 12시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회비납부

■단체

(분담금) ▲삼부토건주식회사(회장 조남욱)

■개인

▲김하섭씨(수산청감사담당관)

▲정영재씨(수산청 청장비서관)

▲송예용씨(수산청시설과)

▲김종봉씨(수산청제조과)

▲홍효선씨(수산청시설과)

새로 8개항에 어항시설

1천2백억원 투입 연내로 공사에 착수

수산청은 올해부터 총공사비 1천2백1억원을 들여 초도항등 8개어항을 본격 개발할 방침이다.

수산청에 따르면 어선대피시설 확충 및 선박접안을 원활히 하기 위해 초도항을 비롯해 삼덕、매물도、울도、광암、풍남、득암、전장포항등 8개항에 올부터 방파제 물양장등 어항시설을 새로 건설키로 했다.

이를위해 수산청은 현재 기본조사가 완료된 이들 8건공사를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올연말까지 모두 공사에 착수토록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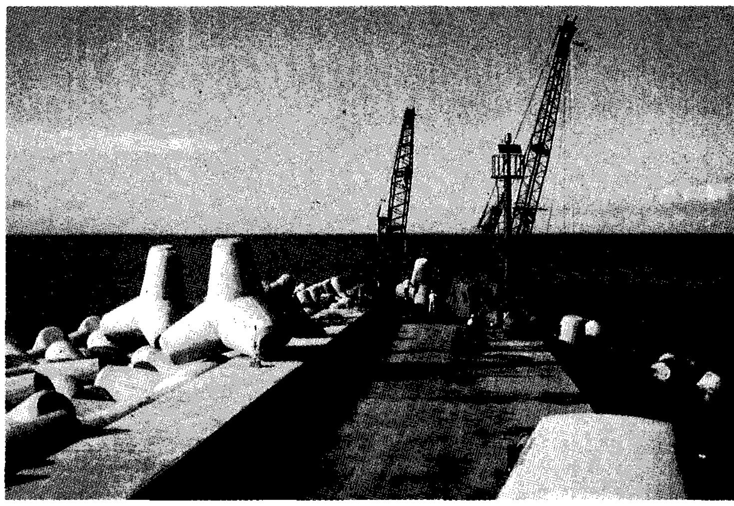
항별개발계획을 보면 초도항의 경우 2백65억원을 들여 물양장 3백90m와 방파제 4백50m등을 각각 건설、10톤급어선 1백30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물도항엔 2백18억원으로 방파제 3백94m와 물양장 2백m를 새로 건설하고 1천6백㎥의 준설사업도 연차적으로 시행、지역내 소형어선정박항으로 본격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어선대피시설이 부족해 태풍피해가 잦은 풍남항에 1백99억원으로 방파제 9백30m、물양장 3백80m、호안 4백20m、파제제 1백50m등을 각각 건설、10톤급어선 2백99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산청은 득암항에 1백69억원을 들여 방파제 7백3m와 물양장 4백45m、호안 70m등을 각각 축조、어선 1백53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백30억원으로 삼덕항에 방파제 3백35m와 물양장 6백75m를 각각 새로 건설、10톤급어선 3백80척이 접안토록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산청은 접안시설 및 대피시설이 부족해 선박안전사고가 잦은 광암항을 비록 울도항、전장포항에도 올부터 어항시설을 연차적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 수산청은 총공사비 1,201억원을 투입, 초도항 등 8개 어항을 개발할 방침이다

발주자 예산 반영해야

공사에 환경오염방지 시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환경오염방지대책을 공사시방서에 반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해야 하며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는등 공공시설공사에 대한 환경오염발생 방지대책이 크게 강화된다.

조달청은 지난 2월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부시설공사계약관련 환경오염방지대책을 마련、공사계약특수조건에 환경조항으로 신설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이에따라 환경오염방지대책으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환경조항을 신설、발주자는 공사규모 시공방법 공사기간을 감안해 환경관계법령에 적합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공사시방서에 상세하게 반영토록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토록 했으며、시공자는 발생오염물질의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했다.

1개항당 평균 2억4천 투자

제2종항 건설、소규모항도 2백16곳 개발

올해 시도지사관리 제2종어항 건설은 전국 77개항에 1백85억7천9백만원(국비 64억1천7백만원、지방비 1백21억6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1개항당 평균 2억4천1백만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또한 1백81억9천1백만원(국비 40억7천6백만원、지방비 1백41억1천5백만원)으로 소규모어항 2백16개항이 개발될 계획이다.

시도 관계자에 따르면 어항개발은 개발수요에 비해 투자지원이 미약하여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으로 지방비의 부담을 늘려서라도 2종어항과 소규모어항 개발투자를 확대하여 어선안전수용과 어항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도별 2종어항 개발계획은 △경남 40억7천7백만원(16개항) △제주 35억7천2백만원(11개항) △전남 31억1천2백만원(18개항) △강원 21억7천8백만원(7개항) △경북 16억8천만원(8개항) △충남 16억1천2백만원(5개항) △경기 8억9천2백만원(3개항) △부산 7억1천만원(5개항) △전북 6억8천6백만원(3개항) △인천 6천만원(1개항)이다.

'94년도 시·도별 제2종어항 건설예산

(백만원)

	합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 계	18,579	710	60	892	2,178	1,612	686	3,112	1,680	4,077	3,572
국고보조	6,417	80	-	446	689	806	343	1,306	840	1,271	636
지 방 비	12,162	630	60	446	1,489	806	343	1,806	840	2,806	2,936
투자항수	77	5	1	3	7	5	3	18	8	16	11

건축행정개혁

건축법 개정 행정 간소화

건설부는 올 연말까지 건축법을 전면 개정해 현행 건축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등 건축행정에 대한 일대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가 마련한 건축관련 서식 구비서류 일제정비계획에 따르면 현재 건축물의 허가와 사용검사에 이르는 과정의 서류는 건축허가전에 1백40종、공사중 25종、사용검사 및 유지관리 29종、관련법령의 인허가시 86종등 모두 2백80여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통계표의 작성등 행정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받고 있는 서식은 과감히 폐지하고 용도 및 기재내용이 중복되는 서류들은 한가지로 통합키로 했다.

농어촌생활권 개발키로

1조1천6백억원 들여

정부는 올해 총1조1천6백16억원으로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등 농어촌개발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지금까지의 농어촌개발사업은 사업별로 투자가 분산돼 투자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앞으로는 진흥지역중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집중 투자방식을 확대키로 했으며 오는 6월말까지 UR협상타결에 대비한 새로운 대책을 수립、종합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민간 합동법인 50%미만 출자

민자유치촉진법안

정부는 당초 입법예고된 민자유치촉진법안 내용 가운데 일부를 수정、민간의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민관합동법인에 대한 공공부문의 총출자비율을 50%미만으로 설정하는등 주주권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무상사용 내용을 변경할 때 발동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기본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허용되는 부대사업의 허용요건을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이 수정안에 따르면 기본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허용되는 부대사업의 허용요건을 기본시설의 투자비보전과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무상사용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하고 변경가능한 것은 공공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키로 했다.

韓國漁港協會 特殊法人 轉換을 祝賀합니다

光南開發 株式會社 社長 柳幸容
金光企業 株式會社 會長 高濟哲
南進建設 株式會社 社長 崔弘
南和土建 株式會社 會長 崔相玉
合資會社 大韓土建 社長 全己燮
東光建設 株式會社 社長 黃今秋
東和建設 株式會社 會長 金生麗
株式會社 三建社 社長 鄭德容
三扶土建 株式會社 社長 趙南元
株式會社 三羊社 社長 廉民雄
三梧綜合建 株式會社 社長 任濟鎬
株式會社 새建設 社長 趙洪濟
盛寶建設産 株式會社 社長 朴星泰
株式會社 成鎬 會長 宋在成
世紀建設 株式會社 會長 梁性厚
信友建設 株式會社 社長 金鐵和
新豊建設産 株式會社 社長 金東漢
永生建設 株式會社 會長 裵還甲
株式會社 宇洲綜合建 會長 高世鎭
林光土建 株式會社 會長 林光洙
正韓綜合建 株式會社 社長 姜昌植
朝興工營 株式會社 社長 朴圭彦
〈가나다순〉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불면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다. 이처럼 노년기 불면증은 점차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효율이 저하된다. 노년기의 수면장애는 나이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 즉 통증이나 불편감을 주는 내과적 질환으로 관절염, 비뇨기계질환, 십이지장궤양, 협심증이 있으며 신경계, 혹은 정신과적인 원인으로도 불면증이 유발될 수 있다. 또 잠을 이루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 이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자주 잠을 깨게되고 오히려 수면의 내용면에서는 불이익을 초래한다.

그외에 여러 약제들이 수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잠자는 방의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 방이 지나치게 춥다든지, 덥다든지, 혹은 시끄러운 경우 노인의 수면을 방해하게 된다. 이렇게 불면으로 시달리는 많은 노인들이 특별한 해결책없이 수면제를 과다복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노년기의 불면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환자 스스로가 잠을 잘 못자는 것이 정상적인 변화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수면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아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며,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저녁에는 과식을 피하고 커피 콜라 차 초콜렛등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또한 잠들기전 간단한 활동, 즉 독서라든가 천천히 걷기,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무리한 활동을 하면 오히려 수면에 지장을 준다.

잠자리에는 가능한 T·V라든가 음식물 등을 두지않도록 하며 방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시끄럽지 않도록 해야한다. 30분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가볍게 걷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낮잠을 피하도록 하며, 잠들기 전 수분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수면태도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해보고, 그래도 계속 수면에 대해 불편이 있으면 약물치료를 해야한다. 이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하에 수면제를 복용해야 하며 자가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노년기에는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더 빈번하고 약제에 대한 내성도 문제가 되므로 가급적 짧은 기간동안만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잠을 잔다는 것은 낮동안의 피로를 풀어주는 휴식의 시간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활력소가 된다.

불면증으로 인한 고통은 낮시간까지 연장되면,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스스로 수면태도를 바꾸도록 노력하며, 잠을 잘 수 있도록 가족들이 협조를 해야할 것이다.

건·강·하·게·삽·시·다

노년기 불면증

커피 콜라 초콜렛 등 자극성 음식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54〕

冷凍 冷藏施設 用地

③ 회전수는 어항의 입지조건, 성격, 어업종류 등에 따라 다르다. 표준적으로는 2~3가지 예가 많다. 〈그림2〉는 주요어업 생산지에 있어서 냉장고의 계획과 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계획 회전수로서는 3을 택하고 있으나 실적의 연간 평균회전수는 최저 1.1에서 최고 3.9로 분산되어 있으며 평균 2.3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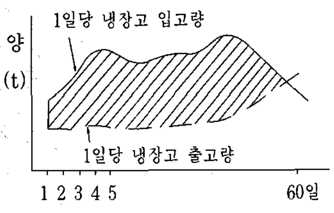
이상의 순서를 거쳐 냉장고 규모는 일반적으로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text{냉장고 규모(톤)} = \frac{\text{냉장고용 출하량(톤/년)}}{\text{회전수(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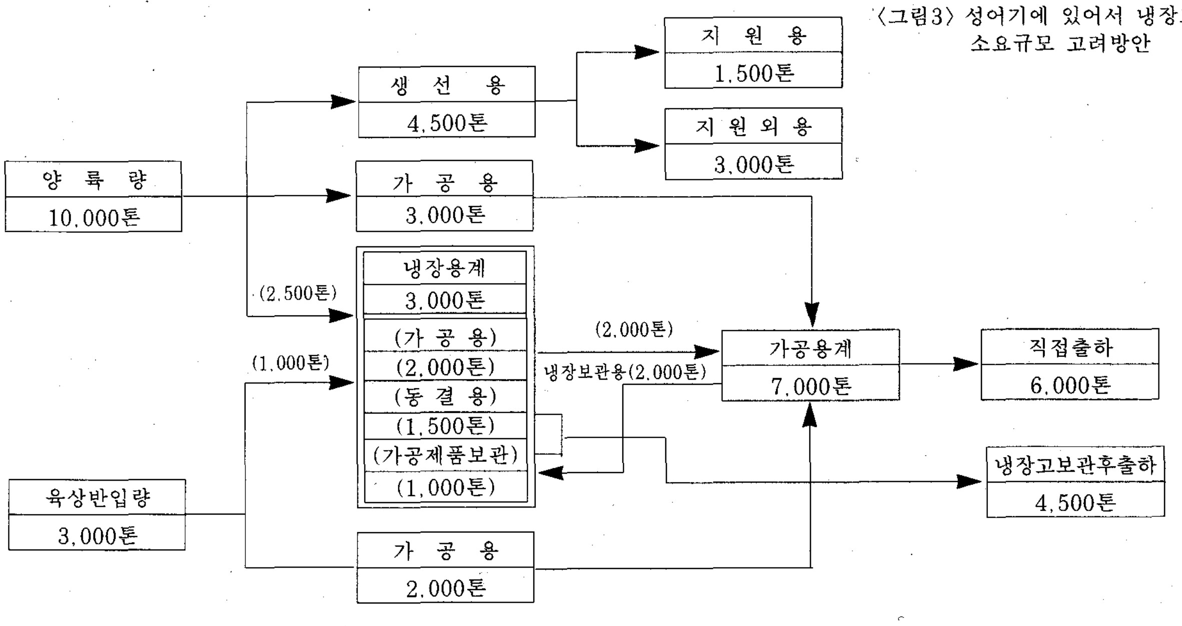
그러나 양륙이 일시에 대량으로 집중되는 어항에 있어서는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한 규모로는 부족할 우려가 있다. 최성기(1~2개월)의 양륙량을 대상으로 이용 배분율을 검토하여 그 율에 따라 냉장고 수용량을 정할 필요가 있다. 냉장고용 출하량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냉장고의 규모로 정하기 위해서는 〈그림3〉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그림3〉에서 사선 부분은 성어기의 일별 소유보관량이지만 성어기에 들어가기 전 기수용량이 있으므로 이것을 더한 수치가 냉장고의 소유규모가 된다.

이와같이 대량의 양륙이 집중하는 때는 어가의 저하도 크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용량이 큰 냉장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성어기 이외의 시기에는 시설의 대부분이 유휴상태로 되어 수익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해서 타당한 시설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3〉 성어기에 있어서 냉장고 소요규모 고려방안



〈그림2〉 이용배분예

♣ 稅務안내

토지초과이득세

소유권이 불분명하면 사용자가 납세의무

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와 도입배경

가. 토지초과이득세란

유효토지 등의 가액이 그 소유자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다른 지역보다 초과하여 상승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일정기간 동안 얻는 이익에 대하여 일정율을 과세하는 직접세의 일종이다.

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도입배경

지가상승으로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경제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유휴토지 공급을 촉진하여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다.

과세대상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 이득에 대하여 부과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량비 등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야 과세된다.

유휴토지 등의 적용기준과 세액계산 방법

가. 유휴토지 등의 적용기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할시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나. 세액계산방법

과세표준=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정상지가 상승분-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

세액=과세표준×50%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후 6년 이내 양도시에는 그 기간에 따라 40-80% 세액공제(다만, 필요경비 공제선택시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전액비용 공제로 갈음)

납세의무자

가. 토지의 소유자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나. 매수계약자 등

유휴토지 등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소유자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부담신고서를 후 소유자가 과세기간종료일의 다음년도 8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에 제출하면 전·후 소유자가 각각 소유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 납세의무자 신고와 납세의무자 통지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납세의무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년도 8월 25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납세의무자로 결정하여 통지하게 된다.

라. 납세관리인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이행치 않고 출국코자 할 때 또는 일정한 장소에 거주치 않는 때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과세기간 및 납세지

가. 과세기간

정상과세기간(3년단위)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그 개시년도의 1월 1일부터 그 종료년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최초의 과세기간은 90년 1월1일부터 92년 12월31일까지이다.

예정과세기간(1년단위)

국세청장이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1년간을 예정과세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다.

나. 납세지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의 필지마다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동일인(하나의 법인)이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동일용도에 일괄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필지로 본다.

위의 하나의 필지로 보는 경우로서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소관 지방국세청장(또는 국세청장)이 그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의 토지관할 세무서로 납세지를 지정하게 되며, 그 토지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과세기간종료일의 다음년도 8.25까지 소관 지방국세청장(또는 국세청장)에게 "납세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 稅務안내